치솟는 기름 값 확~ 줄여야 내가 산다

김원하 |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의 원유는 언젠가 고갈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라든가, 수소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의 화석연료처럼 금방 대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유의 생산지인 중동국가들은 이 원유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저울질 하고 있고, 세계 강대국가들은 이 원유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유 생산 국가들이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원유가격을 올리려 하자 세계 각국은 비축유를 풀어서 맞대응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비축유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여 일 남짓 이여서 무한정 풀기란 어려운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아끼는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자동차 메이커들은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길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를테면 2,000원의 기름으로 10㎞밖에 달 수 없는 차를 20㎞도 달릴 수 있게 만든다면 이론적으로 기름 값을 50%나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1,794만여 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은 거의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앞으로도 연간 3~4%의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연료소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번 타던 차를 처분할 수도 없고, 교통의 불편 등으로 나홀로 차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가계지출에서 기름 값이 차지하는 비용을 놓고 한숨만 쉬고 있다.

▣ 가계비에서 차로 인한 지출 20% 넘으면 적신호

기름 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뛰어넘어 최근 휘발유 1ℓ 가격은 2,020원으로 급등하고 있다. 쏘나타 2,000cc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려면 서울 지역 평균으로 14만6천700원이 예상된다. 출·퇴근 거리가 100km라고 가정할 때 1주일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주말 사용량을 가만하지 않더라도 월 60만 원 정도가 기름 값으로 지출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름 값 외에 보험료, 정비료, 주차료, 감각상각비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가장의 월수입과 대비해서 20%가 넘으면 위험신호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더구나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레저 활동을 위한 자동차 운행 수요는 더욱 늘고 있어 기름 값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편리하다는 단순 논리 때문에 자동차를 무리하게 소유하는 것은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동차를 왜 소유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따져 보고 과감하게 처분하던지 아니면 경비가 적게 드는 차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벌써 이런 바람이 일고 있다. 올 들어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경차 판매 비중이 승용차의 2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경차 비중이 승용차의 20%를 넘어선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이카 시대가 도래된 지 20여년이 넘어 이제 경차를 타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 중고차든 새 차든 연비가 좋은 차 선택해야

고유가 시대에서 운전자(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과감히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자동차를 운행하되 최대한으로 기름 값을 아끼는 전략을 짜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 있던 차를 처분하고 없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이 망해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자동차다. 그 만큼 자동차는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는 알뜰 운전을 하는 길 밖에 없다. 우선 이것저것 따져보고 수입에 맞는 차를 선택한다. 체면 때문에 큰 차를 고르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싸고 기름이 적게 드는 차를 선택한다.

일부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일부러 중고차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는 데 이들은 한결같이 중고차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고차든 새 차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 기름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 아직도 폴사인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주유소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싼 곳을 선택한다. 정유사간 품질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다르지만 정유사에게는 제품교환이라는 게 있다. 이는 폴사인제(pole sign system)가 2008년 9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폴사인제는 주유소상표표시제라고도 하며, 199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유소에서 여러 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제조회사의 상호를 표시하는 상표표시제를 말한다. 즉 다른 상품과는 달리 눈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휘발유의 특성 때문에 여러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불량제품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하여 취향에 맞는 기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특정 정유사의 폴을 단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질을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1995년부터 정유사간에 시장점유일 경쟁이 가열되면서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장치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각 주유소는 혼합판매 사실만 표시하면 다른 상표의 정유사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짜 기름을 판매하지 않는 한 어느 주유소든 품질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이를 테면 SK든 S-OIL이든 꼭 자사 제품만 받아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주유소 100배 잘 이용해 목돈 만들기

주유소 전문지 기자와 주유소 경영자, 주유 관련 컨설턴트 등 주유소 관련 분야에서 20년을 종사해온 저자 한 호 씨가 펴낸 〈주유소 100배 잘 이용해 목돈 만들기〉에 의하면 "작은 부지런함을 통해 기름값이 1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한 번 주유에 1만 원 이상의 기름 값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밖의 주유소의 부대적인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고유가시대에 운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는 알뜰한 방법을 따라가 보자.

▷ **주유소에서 돈 버는 기본 테크닉:** 무조건 싼 데서 기름을 넣어라. 품질 때문에 불안하면 차선을 선택하라. 발품을 팔수록 싸게 넣을 수 있다. 어라? 100원 이상 차이가 나네! 가격보다 품질? 직영 주유소로 가라. 한두 곳을 지정해 놓고 주유하라. 기왕이면 한 번에 가득 채워라. 주유기의 공차에도 관심을 가져라. 차계부는 연비를 알 수 있게 써라.

▷ **주유소에서 돈 버는 고급 테크닉:** 이왕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범인(凡人)들이여, 주유전용카드를 사용하라.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아라.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라. 어느 정유사 주유소의 가격이 싼가. 보너스 포인트, 100% 써 먹어라. 쿠폰도 잘 모으면 돈이 된다. 무료세차,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정유사의 마케팅에 적극 참여하라. 주유는 새벽에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공기가 차면 휘발유가 덜 팽창하니까). 세차기 없는 주유소가 훨씬 싸다. 현금영수증, 반드시 챙기자. 공동구매와 단체할인을 활용한다. 주유소의 무료서비스를 챙기자. 바쁜 날은 피해서 주유하라.

▷ **잘못된 주유상식에서 탈출하기:** 셀프 주유소는 정말 쌀까? 바이오디젤은 문제가 없나? 혹시 주유소에서 혼유되는 건 아닐까? 어, 간판의 가격과 실제 가격이 틀리네! 주유소가 밀집된 곳이 싸다? 한번 싸면 영원히 싸다? 고속도로 주유소는 비싸다?

▷ **주유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방지로 돈 벌기:** 계산은 본인이 카운터에서 직접 하자. 시동 건 채 주유하면 벌금 200만원. 주유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자. 자동세차 시에는 세차원의 지시를 따르자. 주유 캡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겨울철에는 정전기를 조심하자.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와 얘기하라.

▣ 맞춤형 연비개선 서비스 '연비 세이빙 클리닉' 실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개별 차량 상태를 분석해 기름값을 줄여주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경정비 전문 업체 티앤티모터스(TNT Motors)는 차량

상태와 주행 환경을 감안해 연료비 절감 처방을 내려주는 맞춤형 연비절감 컨설팅 서비스인 '티앤티 모터스 연비 세이빙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연비 세이빙 클리닉'은 각 차량의 노후 정도와 운전 습관 등을 분석해 연비절감을 최대 30%까지 끌어올리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로 고유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차별 화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세부 분야별 전문 서비스들로 구성된 '연비 세이빙 클리닉'은 무료 진단에 기반을 두어 연비 운전법 등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행된다.

'맞춤 오일 서비스'는 운전자의 주행 습관과 차량 노후 상태, 계절적 요소와 희망 가격 등을 조사한 후 각 차에 가장 이상적인 오일을 시공해 윤활 성능 극대화를 통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서비스다. 오일 교환시 잔유를 철저히 제거하는 전문 플러싱 작업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엔진 복원 서비스'는 장거리 운행이 많거나 노후된 차량에 적합한 서비스다. 엔진 마모로 인한 출력 저하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연비를 대폭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미세한 나노 입자가 손상된 엔진 내부를 치료해 폭발압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연비저하의 원인이 되는 외부 공기의 배기관 역류를 막고 배기가스 배출을 돕는 연비개선 '배기장치 장착 서비스'와 냉각 성능을 개선해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비 정비 서비스' 등 연비 개선에 특화된 차별화된 서비스들로 구성돼 있다.

▣ 에코(Eco)기술로 승패 갈린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차량 중량을 10% 줄이면 5% 전후의 연비향상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엔진을 경량화하거나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차대를 만드는 등 연비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운행 정지 시 엔진이 스스로 꺼져 공회전을 방지해주는 장치나 급출발과 급가속 시 경고 등으로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 등 연료비 절감을 돕는 새로운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타이어업계도 신소재를 적용해 마찰력을 줄여 연비를 높인 기능성 제품이 대세다. 회전 성능을 높여 바퀴와 노면간 저항력을 줄여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원리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한국타이어의 '앙프랑'과 금호타이어의 '에코윙'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출시된 기능성 에어필터와 오일필터, 휘발유 차량의 효율적 엔진연소를 돕는 점화 플러그도 엔진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다.

▣ 기름 값 아끼는 '에코드라이빙'이 최고

기름이 적게 먹는 차를 선택하는 일이라든가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 값을 절약하는 모든 일들이 운행단계에서 과속을 일삼거나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허사다.

따라서 운전자는 예열을 위한 공회전 대신 초반 몇 분간 저속 상태로 주행해 예열을 대체하고, 시동을 걸기 전에 모든 출발 준비를 마치고 5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 꺼두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항상 적정 공기압만 유지해도 노면 저항력을 낮춰 연비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타이어 위치 교환도 실시한다.

또 불필요한 짐을 최소화하고 짐을 실을 경우 차량의 무게를 앞뒤 좌우로 균형 있게 배분 한다.

운전자가 기름을 아끼는 최선의 방법은 '친환경 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일이다. 출발 시 가속 페달을 나눠 밟아 서서히 가속하고, 경제속도(시속 60~80 ㎞)로 정속 주행을 하며 내리막이나 오르막길에서는 탄력을 이용해 주행하고 급제동과 급가속을 금하는 일이 기름을 확~ 줄이는 일이다. K